

# 스님 노후복지, 타 종교 비해 열악

## “전혀 안되고 있다” 불교 59% 기독교 39% 천주교 32%

### 기독교 300명·불교·천주교 각 100명 대상 조사결과

스님들의 노후복지 수준이 다른 종교 성직자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연금포럼 제 12호>에 기고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정책방향'에서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기독교 3백명, 불교·천주교 각 1백명씩 모두 500명을 대상으로 성직자의 노후 준비정도를 조사한 결과, 불교의 경우 '전혀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나, 기독교 39.7%, 천주교 32%보다 훨씬 높았다.

불교의 조계종·태고종·기타 종단, 기독교의 장로교·감리교·성결교, 천주교 등 각 종교의 종파 및 교파별 응답에서 '전혀 안되고 있다'는 응답은 조계종이 61.4%로 가장 높았다.

성직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노후 준비대책으로는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개인연금 및 개인저축'(불교 37%, 기독교 44.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천주교의 경우는 '종단마련도

후준비'(87%)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용희 씨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의 노후복지를 비교하면서 진각종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노후보장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의 경우는 승려노후복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나 재원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고, 태고종과 천태종의 경우도 노후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 목사·신부 대상 연금·생활보장제 운영 진각종 빼곤 체계적인 노후제도 없어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진각종은 은퇴 성직자에게 월 100만원 정도의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원불교도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 불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노후복지 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감리교의 경우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월 연금액은 평균 77만원이고, 성결교도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 정도의 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로교는 총회연금제도를 통해 월평균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침례교도 연금액을 가입기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총회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서울과 인천교구 등 몇몇 교구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교구들은 자체 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세 종교 성직자의 월평균 소득은 불교의 경우 50만원 미만(52%)이 가장 많았고, 기독교는 50~100만원(29.7%), 천주교는 50~100만원과 50만원 미만(40%)로 갈래 나타났다.

한편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2월 25일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설립 9주년 기념 포럼에서 "승가 노후복지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복지진흥법을 제정하고 불교사회복지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2월 25일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설립 9주년 기념 포럼에서 "승가 노후복지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복지진흥법을 제정하고 불교사회복지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영우 기자 mwahn@buddhapia.com

# “北 아사자 약 300만”

## 좋은벗들 ‘북한 식량난과 인권’ 보고서 주요내용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토론회”에서 이승용 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이 “북한 식량난과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탈북난민 3,005명의 증언을 토대로 인권실태를 연구하고 해법을 모색한 북한인권보고서가 나왔다.

(사)좋은벗들(대표 유수이)은 2월 23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 토론회에서 공개된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좋은벗들은 보고서에서 “식량난으로 약 300만에 가까운 아사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 제반구조가 와해되고,

좋은벗들은 북한주민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인권대화 △식량난 실태 공개 및 분배 투명성 보장 △주민 경제사회권 보장(이동권 보장·장마당 전면허용·개인영농 인정·연좌제 철폐) △시민·정치적 권리 향상(탈북자 및 생존형 범죄자 처벌 완화·교문 및 비인도적 처우 개선·표현의 자유 보장) △인도주의적 차원 인권개선 등을 북한 당국에 제안했다.

## 식량난·생필품 부족 심각 정상적인 일상생활 불가능

개인적으로는 생필품의 상시적 인 부족과 각종 전염병 노출, 학교 결석과 직장 결근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자유 제약은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 제약의 의미가 크다는 점 △개인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빚어진 갈등이 경제권 침해로 나타난 점 △출신성분에 대한 차별 및 여성과 아동의 인권문제는 식량난 속에서도 생존에 가장 취약한 소수자 인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새롭게 나타나거나 더 열악해진 인권문제로 꼽았다.

식량난 속에서 경제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해 정치적 인권문제가 더 심각해졌으며 △주민 생명권 침해 △생존형 범죄와 정치적 범죄에 대한 과도한 처벌 행태 등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들었다.

또 남한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협력 확대 △남북 군비축소 회담 △정 보공유 및 탈정치적 접근 등을, UN 및 국제사회에 △인권상황 차이 인정 △대량 인도적 지원 병행 등을, 미국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량 인도적 지원 및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제 △불가침 협정 후 북미수교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일본에 △납치자 송환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분리 △대북 경제제재 법안 철폐 △북한 비방 및 조종련 탄압 중지 △북일 외교관계 정상화 등을, 중국에 △북한난민 수색, 연행, 강제송환 중지 △인 시 거류증 부여 △아인과 여성 인권 보호 △국제 결혼 인정 등을 촉구했다.

# 생명존중 메시지 선포

## KCRP, 27일 대학로서 퍼포먼스 등 진행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7개 종교 연합기구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백도웅)는 생명존중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3월 27일 오후 4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생명존중 메시지 선포식’을 한다.

행사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합동 위령제와 추모제, 전문 공

연단의 생명주제 퍼포먼스, 생명 이미지를 담은 전시회 등이 열린다.

또 연인들이 생명존중 어깨띠를 두르고 대학로 거리를 행진하면서 생명존중 선언문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KCRP는 이외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사이버 홍보활동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남동우 기자



## 생전예수재 ‘수행결과’

수행결과로 생전예수재를 지내는 서울 봉은사 생전예수재가 2월 27일 입학했다. 5백여 사부대중은 매일 보시금 모으기, 자원봉사하기, 장기기증 서약, 사경 등 16가지 청구에 따라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박병영 기자

## 법장 스님, 환경단체와 간담회 긍정 반응

국립공원 제도개선 및 새만금 등 각종 환경 문제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시민환경단체 대표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2월 25일 조계종 기획실이 밝혔다.

기획실은 시민환경단체대표들과 오전을 겸한 간담회에서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해 조계종과 단체들간 논의의 구조 필요성을 지적하자 법장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했다.

법장 스님은 또 “총본산 성역화 사업 마스터플랜을 곧 확정해 향후 2~3년 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

이라며, 불교전통음식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학과개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동우 기자

**올 연등축제 어울림마당 동대문야구장에서 진행**

올 연등축제 어울림마당(연등법회)이 주차장 문제 등으로 동대문축구장에서 동대문야구장으로 변경됐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3월 26일까지 불족위원회(02-2011-1745)로 신청서(양식은 www.연등축제.kr)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 실천승가회 법인설립 추진

## 올 사업계획 확정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이하 실천승가회)가 올 사업으로 종단개혁 10주년 기념행사와 사단법인 ‘아름다운 세상’ 설립, 캄보디아 지원, 불교평화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실천승가회는 2월 25일 서울 법원사에서 열린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종단개혁 10주년 기념행사는 4월 8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되는 기념법회와, 같은 날 오후 5시 △94년 종단개혁불사에 대한 개괄적 평가 △종단개혁의 관점에서

본 현 종단상황에 대한 의견 △향후 종단개혁운동의 지향점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준비돼 있다.

캄보디아 지원사업은 현지에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캄보디아 중정 템플 스님을 법인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한다는 계획이다. 옷 모으기 운동과 IT 지원 등 물품지원사업, 템플 스님 초청 법회와 종단이나 사원별로 진행되는 자매결연 등 불교교류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한국내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커뮤니티를 결성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법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의료 및 법률적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사업이 눈에

뵈인다.

대외사업은 생명평화와 인권에 기초를 뒀다. △불교(평화)운동 모델 연구 및 개발 △종단 참여 프로그램 연구 및 제안 △평화포럼 및 세미나 개최 △평화 기금 적립 및 평화단체 후원 △평화 온라인 사업 △불교평화센터 설립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 중 불교평화센터는 평화운동 실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며, 승·제가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한편 총회에서 지난해 결산 3억4백여만 원과 예산 1억2천7백여만 원을 통과시켰다.

한편 신임 공동의장에 효림 스님(파주 보광사 회주)이 추대됐다.

효림 스님 인사부 14년 남동우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영

#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 [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III-1030] 기도봉행**

<제 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입재 : 2003년 11월 2일 ○회향 : 2006년 8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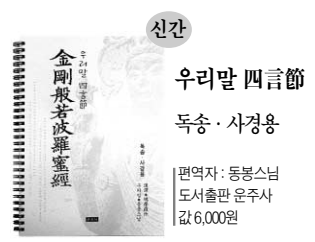
**삼사순례 안내**

<강화 보문사, 전등사, 선원사> ○일시 : 2004년 3월 7일 일요일

○출발지 : ① 동서터미널 ② 모란시장 ③ 곤지암 ○출발시간 : 오전 7시

**생전예수재 안내 만 49일간 봉행**

○입재 : 2004년 양력 2월 29일 ○회향 : 2004년 음력 2월 29일



《불심수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승으로 부터 이분배 인생자금을 대출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업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만 한가지 다른 점은 이승에서는 자기자본이 충분하다면 구태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 때는 누구나 반드시 그 돈을 받아야만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생들은 저의이승에서 태어났던 대출자금을 저승에 다시 갚아야 합니다. 그 상환하는 의식이 바로 [생전예수재]라는 의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절에서는 2000여년의 우리나라 불교역사상 최초로 [예수재의식]을 우리절 사단법인 권역한 민중 국내에서는 가장 여법하게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